

추석 연휴 뒤 곳곳서 ‘콜록콜록’...광주 병원 북새통

감기 진단 많고 ‘코로나19’ 확진도
진료 중에도 신규 환자 접수·대기
최근 3주 입원환자 꾸준...작년비 ↑



최근 광주 지역 감기 및 코로나19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일의 추석 황금연휴 뒤 첫 평일인 13일 오전 복귀 한 이비인후과가 진료를 받기 위해 온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윤찬용 수습기자

“연휴 때 열도 나고 몸살 기운도 있어 병원에 왔더니 코로나19 양성이라네요. 다른 가족들은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최장 10일의 추석 황금연휴 뒤 첫 평일인 13일 오전 10시께 광주 동구 한 이비인후과는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로 북적었다.

의자에 앉아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던 이들은 간호사의 호명에 차례대로 진료실에 들어갔다.

진료 중에도 신규 환자가 잇따랐는데, 부축을 받아 병원에 들어선 한 시민은 연신 기침을 하며 접수를 마친 뒤 의자에 털썩 앉아 가족의 어깨에 기대 숨을 돌렸다.

한 여성은 몸이 추운 듯 팔을 감싸 안은 채 떨었고, 또 다른 시민은 이마에 맺힌 땀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았다.

동구 주민 표대영(70대)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미열이 있어 감기라고 생각했으나, 후시몰라 코로나19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왔다”며 “명절 때 많은 가족과 만났는데, 옮겼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오전에 진료를 본 80여명 대부분 감기 환자였지만,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이들도 더러 있었다”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양성이었다”고 전했다.

비슷한 시각 광주 북구 소재 이비인후과 역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로 북적었다. 접수 창구에서 부르는 번호에 맞춰 접수를 마친 시민들은 진료실 앞 복도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감기와 코로나19 등 호흡기질환에 걸

린 것 같다고 호소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김지은(30대·여)씨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이라는데, 아이가 열이 많이 나 가슴이 찡찡했다”며 “다행히 단순 감기로 나와 약만 처방 받았지만 앞으로가 걱정

이다”고 우려했다. 실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광주 지역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38주차(9월14-20일) 기준 23명이었다.

이는 약 한 달 전인 33주차(8월10-16일) 14명보다 64.3%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7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228.6% 폭증한 것이다.

이후에도 34주차(8월17-23일) 20명(지난해 56명), 35주차(8월24-30일) 26명(지난해 32명), 36주차(8월31-9월 6일) 27명(지난해 20명), 37주차(9월7-13일) 23명(지난해 8명) 등 코로나19 입원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39주차 통계부터 집계되지 않았지만, 보건 당국은 장기간 이어진 추석 연휴 탓에 당분간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일상 속 확산 위험이 큰 감염병”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철저히 지켜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6세 이상 어린이와 면역 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형우·윤찬용·이연상 수습기자

광주서도 ‘캄보디아 실종’...경찰, 3건 수사

북부서 1건·광산서 2건...모두 20대
“소개 파악·전수조사...총력 대응”
전남경찰 “아직까지 특이사항 없어”

다만, 외교부에 요청한 재외국민 체류 사실 확인에 대한 회신은 아직 받지 못했다. 광산경찰도 지난 8월 가족과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B(20대)씨를 찾고 있다. 당초 B씨는 지난 6월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고 태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가족과 통화가 이뤄진 B씨의 휴대전화는 캄보디아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가족에게 작은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통화 후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의 가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B씨가 캄보디아에 억류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경찰은 올해 1월 중순부터 소재가 불분명한 C(20대)씨의 위치도 찾는 중이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C씨 역시 돈을 벌기 위해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은 A·B·C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강구하는 한편 이들 외 추가 실

종자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캄보디아로 출국한 지역민 중에선 실종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역민 실종 정황은 없지만 연락두절 등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영 기자

금타 노조 쟁의행위 93.7% 찬성

금호타이어 노조가 임단협 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여 파업이 가시화됐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전 조합원 3천433명을 대상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3천261명 중 3천54명(83.7%)이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이에 노조는 14일 쟁의행위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성학 기자

광주서 ‘또’ 폭발물 소동...공권력 ‘낭비’

경찰, 지역 중·고교 4곳 수색
허위 협박 판단...올해 11건

광주에서 허위 폭발물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소동이 또 한 번 벌어졌다.

1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북구 소재 A 고등학교와 남구에 있는 B·C 고등학교, D 중학교 측으로부터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고등학교들은 모두 신원을 알 수 없는 동일 인물로부터 “학교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고 10월13일에 터질 것”이라는 내용이 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D 중학교에도 비슷한 내용의 메일이 발송됐으나, 학생 이름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교는 경찰 신고 후 학생들을 조기 하교시켰다.

각 학교에 출동한 경찰은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메일들이 모두 해외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에선 지난 8월에도 ‘서구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한 허위 폭발물 협박이 있었다.

관련 내용의 팩스 문서를 수신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신고했다.

광주경찰은 롯데백화점은 동구에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구 신세계백화점에도 인력을 파견했으나 모두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광산구 한 식당에서도 폭발물 설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같은 허위 협박은 올해 들어 이날 접수된 것까지 포함해 11건에 달한다.

경찰은 허위 협박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나 대부분 해외 서버에서 접수된 것이라 검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공권력을 낭비한 허위 신고 용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례가 있다”며 “분청 차원에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인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